



PROTECTING OUR PLANET WITH NEW TECHNOLOGY

I S S U E 7 0 · J U N E 2 0 1 5



INDEX

K C N E W S L E T T E R

KC그린홀딩스 이태영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2015년 ES부문 반기보고 및 TOP MC 최종보고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 안전보건활동 표창

KC환경서비스 화차공장 상업운전 시작

KCHM 아이디어 워크샵

KC글라스 창립 44주년 기념식

제21회 유리가술인 모임 발표



KC그린홀딩스 이태영 대표이사 제 20회 환경의 날 산업포장 수상

KC그린홀딩스 이태영 대표이사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이 날 행사는 '생물자원보호, 미래를 위한 배려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환경보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그 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였다.

기념식에는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산하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유공자 총 39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산업포장 수상을 계기로 KC그린홀딩스가 환경산업의 선두주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5년 ES 부문 반기 보고 및 TOP MC 최종보고

지난 6월 30일 전라남도 여수 유캐슬 호텔에서 2015년 ES 부문 반기회의와 TOP MC최종보고가 열렸다.

첫 번째로 진행된 반기회의에서는 각 사가 설정한 2015년 계획의 실행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C환경서비스의 화치동 확장 단지 소각설비 완공, KC한미산업의 폐유정제 설비 증축 공사, KC에코에너지의 SRF 생산설비/ 보일러 가동 현황, KC환경건설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KC환경개발의 침출수 처리 설비 공사 진행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각 사의 공사들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해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반석에 올라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세션은 소각 3사가 지난 1년간 진행한 TOP 활동의 최종보고였다. 지난 해 7월 1일 제주도 상효원에서 TF인원들과 함께 진행한 TOP Academy를 시작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3사 전체의 제안 실행률은 85% 였으며, 613백만원의 재무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TOP 활동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비단 재무적인 것만이 아니다. 3사의 각 Unit별 정기모임이 정례화되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담당자들은 첫 번째 TOP에 대한 소감으로 이번 TOP활동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을 보충하여 새로운 TOP를 만들어 내재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TOP 2기의 성공적 착수와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태영 대표이사는 TOP 활동을 통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재무적 성과보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더욱 값진 것이므로 이를 꾸준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총평을 하였다. 아직 실행중인 제안과 활동들이 많은 가운데 TOP TF는 2016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11월까지 TOP 2기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TOP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 해주신 현장사원부터 대표이사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맥큐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함께하자 TWO 달성하자! 2010



▲이태영 대표이사 KC환경서비스 확장단지 설비 순시 ▲ES Div. 반기회의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 안전보건활동 표창

ES 부문 안전보건활동 표창을 수상한 KC한미산업과 KC에코에너지에 대한 표창 전달식이 지난 6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안전보건활동 표창은 1년에 한 번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안전활동을 평가하고 수상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임원워크샵에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상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한 KC한미산업은 이강욱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작년과 비교하여 높은 개선 결과를 보여준 KC에코에너지는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KC에코에너지 주재 임원인 채수백 상무와 안전환경팀의 주요한 팀장은 내년 평가에서는 반드시 대상을 받아 KC그린홀딩스 모든 관계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KC환경서비스 화치공장 상업운전 시작

6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전남 여수시 위치한 KC환경서비스의 화치공장이 7월 1일부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화치공장은 부지 매입 후 인, 허가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4년 5월 7일 건설 착공식을 시작하여 1년여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동이 시작되는 화치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액상 및 슬러지류 폐기물 처리에 최적화된 FBC(Fluidized Bed Combustor) TYPE으로 설계되었으며, 일처리용량 84톤으로 허가 받은 시설이다.

화치공장이 더욱 뜻 깊은 것은 주요 구조물을 관계사간 협업을 통해 KC코트렐 무순공장에서 제작하여 공사원가를 절감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의 한국 바스프 여수공장에 시간당 약 15톤 공급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도약”을 올해의 회사 구호로 삼고 있는 KC환경서비스가 신규공장 증설과 함께 힘차게 재도약할 것을 기대해본다.





KCHM 아이디어 워크샵

2 014년 7월부터 소각 3사는 TOP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많은 아이디어 도출 및 이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어 들고 있다. 이에 KCHM산업은 지난 6월 16일 독자적으로 '아이디어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아이디어의 개발 및 직원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33명의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53건의 아이디어가 개발되었다.

워크샵에 참여한 직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놀랍고, 앞으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KCHM산업의 이러한 노력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임직원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KCHM산업은 '아이디어 워크샵' 외에도 월례 회의에 각 팀장이 돌아가며 독후감을 발표하는 '독서경영'을 실시하며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과 임직원간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KC글라스 창립 44주년 기념식

KC글라스는 지난 6월 8일,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창립된 지 44주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비단 그 숫자만으로는 내포할 수 없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금의 KC글라스가 있기까지 갖은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전 임직원의 노고를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 날 행사는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며 그 동안 회사를 위해 힘써준 10년·20년·30년 장기근속자와 유공사원, 모범사원 등에게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써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정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기념식사를 맡은 이석구 전무는 병유리, 신소재 사업을 넘어 정부과제 및 우즈벡 MOU 체결 등으로 사업영역과 수익모델을 확대해갈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유리병 사업 및 소재사업의 안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하였다. 이는 KC글라스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KC글라스를 지원하고 격려해 준 KC그린홀딩스의 이태영 대표이사와 주요 고객처인 광동제약, 첨단 소재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준 3M 및 KC글라스의 모든 거래처와 협력업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또한, KC글라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임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사항을 공유하는 활동에 사우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KC글라스의 모습과 같이 회사 구성원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아끼고 발전시켜나가자고 모두를 격려하였다.



Cullet 사용에 따른 GHG 감축					
항 목	Raw materials	Cullet 85%	증 감	증감율(%)	비 고
용융에너지 원단위(t/ton)	142.2	112	30.2	21.2 ↓	B-C 유 :130ton/일
연료 사용량(t/년)	6,747,390	5,314,400	1,432,990		
연료GHG 배출량(tCO ₂ /년)	19,970	15,728	4,242	21.2 ↓	Cullet10%증량: 용융GHG ⇒ 2.5% ↓
소다회사용량(ton)	13,688	2,190	11,498	84 ↓	150ton/일
석회석사용량(ton)	10,950	1,205	9,745	89 ↓	
원료 GHG 배출량(tCO ₂ /년)	10,494	1,439	9,055	86.3 ↓	Cullet10%증량: 원료GHG ⇒ 10% ↓
Total GHG 배출량(tCO ₂ /년)	30,464	17,167	13,297	43.6 ↓	Cullet10%증량: GHG감축 ⇒ 5.1% ↓



제21회 유리기술인 모임 발표

지난 6월 26일 한국세라믹학회 유리부회가 주관하는 제 21회 유리기술인 모임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2층 제1 대연회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세라믹학회 유리부가 국내 유리관련 기술자들 간 정보 공유 및 산학연 협력을 논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유리기술인 모임’(6월), ‘유리심포지엄’(12월) 중 하나인 금번 행사에 KC글라스, 한글라스 등 유리업계 관계자 및 학술기관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유리산업에서 온실가스”라는 주제로 실무적인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KC글라스 창조경영연구소 이선영 소장은 “유리 제조 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감축”이란 주제로 유리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와 배출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고 있었으며, 특히 유리병 제조 시 파유리 사용 비율을 높일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리 원료 중 파유리를 10% 증량하여 혼합사용 시 온실가스가 2.5% 감축되고, 소다회·석회석 등 탄산염원료 사용을 줄일 시엔 온실가스 10% 가량 감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현재 KC글라스의 파유리 혼합 사용비율은 86%로서 국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A GLOBAL LEADER IN GREEN BUSINESS